

노조소식

노동조합은 2021.03.22(월)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현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렸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담화문이 나간 당일(2021.03.22(월)) 대표단을 구성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노사 회의를 진행하였고 추후 몇 차례에 걸쳐 세부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에 있었던 m.Smart자산센터 발령 건과 논의 안건에 따른 회사 측의 답변이 있었기에 조합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과감한 혁신 없는 조직개편 즉각 중단

고객솔루션본부(현재: m.Smart자산센터) 조합원 강제 이동 발령

Cowork이 안되는 부문 대표 체제 문제점 지적과 각 부문 대표 자질 문제

주52시간 관련하여 당사 조합원 근무 현황

➤ 고객솔루션본부에서 m.Smart자산센터 명칭 변경 이후 대규모 인사발령

회사는 과거 상담센터->IWC->고객솔루션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회사는 충분한 검토와 숙고 없이 조직을 신설, 개편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직의 처음 신설 취지가 퇴색되고 변질되어 왔고, 이는 직원들의 악화된 노동조건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회사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강행하려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사는 고객솔루션본부(과거 명칭)의 대규모 인사 발령을 준비하고 있었고,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단행하려는 인사 명령에 대해 조합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객솔루션본부 조합원 인사 명령 즉각 철회 요구』 공문을 통해 회사에 전달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대규모 인사이동을 협의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 지점으로 기 중간에 이동 발령된 직원들을 위해 영업 평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발령 받은 조합원과 해당 지점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평가 역시 실적에 따른 결과보다 태도(Attitude)를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발령 받은 우리 조합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회사가 약속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 솔루션(현재:m.Smart자산센터) 조합원들에게는 (2021.03.29)별도 소식지 발송 함.

➤ 부문대표체제 방식의 문제점 지적

현재 지점 및 고객센터에서는 비대면 계좌 이슈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문제 해결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코웍(cowork)이 안되는 각 부문대표체제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고 회사에 지적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을 뒤로한 채, 아직도 각 부문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는 부문대표체제의 문제점을 회사에 제기하며 더 이상 부문대표들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조합원들의 희생을 볼모 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비대면 고객이 지점에 내방하여 업무처리를 해야한다면 그건 대면 고객 영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회사는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비대면 고객들이 지점에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ex 모바일 OTP발급 등)과 전산 개발 지원을 위해 IT.디지털 인력을 적극 총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점에 비대면 전담 서비스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부착하고, 비대면 고객은 영업점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4월 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객관리 R&R(당사 고객의 구분과 담당 부서의 명확화)에 따른 업무 분장을 명확히 실시할 것이며 이에 적합한 조직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회사는 각 부문의 코웍(cowork)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 하고 미래를 내다 보고 그에 적합한 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혁신! 언제까지 혁신을 조합원들에게만 강요할 것입니까? 이제는 회사가 먼저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로

2021.03.23(화), 며칠 전 사명 변경으로 인해 여의도 사옥은 밤 12시가 넘어 까지 야근을 해야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IT직원 및 디지털혁신본부 직원(약300명)을 찾아가 저녁9시~10시까지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나눠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 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 협의하여 사명 변경 주에는 3.5시간이 초과 되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 9.5시간이 초과된 직원들은 부서 내에서 자율적으로 휴가 부여 및 단축 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안으로는 주52시간 초과 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2021년 단체협상을 통해 PC-ON/OFF제 및 유연근무제도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문제가 되는 1일 연장근무 한도 초과, 주 52시간 초과 문제는 4월20일(화)에 있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과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접속 불가에 따른 IT전산 사고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IT조합원들께서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IT 투자 확대, 전문 인력 확대 등을 포함해 창의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찍어 내리는 방식의 저질 조직문화 개선 등을 노동조합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문제'를 '사태'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제는 정확히 보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IT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IT 전산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후 보상 처리에도 미숙함이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혁신부문과 협의하여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상 전담 관리 팀 구성 및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아닌 직원과 고객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2021년 4월 6일(화) 중앙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제14대 노동조합이 정식 출범합니다!

조합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교섭 안건을 만들고 2021.04.13(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 역시 이번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준비된 시작! 동행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을 통해 감동주는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